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법〉

## ‘포특별법’ 합의 뒤집는 무책임 黨政

정부와 새누리당이 합의를 뒤집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문화도시특별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는 호남고속철 시대전 경유 논란에 이어 또다시 지역 발전에 역행하는 처사여서 지역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관계자에 따르면 새누리당 교문위원들과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들은 2일 오전 당정회의를 열어 문화도시특별법을 재검토하기로 협의했다. 교문위 새누리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은 이날 “특별법을 정부 입장에서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한다”며 “(여당 교문위원들은) 법안소위 과정에서 정부 입장을 정확히 조율하지 못한(문체부의) 혼선을 질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오는 9일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이미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

정부, ‘국가 소속 기관’ 3~5년 한시적 요구  
새누리, 상임위 통과 뒤 “광주법이다” 상정 막아  
2월국회 통과 안되면 예산·인력 등을 개관 차질

과한 특별법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며 수정 의결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2월17일 교문위 법안소위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 국가 소속 기관임을 분명히 하고 국가재정 지원 또한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여야는 물론, 정부의 합의 하에 위원회 수정안으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 법안은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 나아가 새누리당의 반대로 표류하며 이날까지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정부는 국가 소속 기관을 3~5년 한시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이다. 또 새누리당

지도부는 “특별법은 ‘광주법’이라며 전체회의 상정마저 막고 있다. 나아가 새누리당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관련기관들의 협조 의무와 인근 지역주민을 우선 고려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아시아문화개발원 명칭까지 빼앗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면서 법안 처리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더욱이 특별법 합의에 대해 책임을 물어 김희범 문체부 제1차관을 경질했다는 얘기가 정치권에 나돌면서 2월 임시국회 처리도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문제는 문화전당의 개관 준비에 차질이

빛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특별법이 처리되지 않아 문화전당 인력의 운영과 확충 및 내부 규정의 확립, 예산안 확정 등을 통한 체계적인 개관 준비를 못 하고 있다. 특히 공연과 전시 관련 기획이나 개관에 맞춰 있는 콘텐츠를 실현할 인력과 예산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

이와 함께 내부 규정의 미비로 일부 정당 조직과 행정 조직의 구별까지 모호해지고 있으며 운영주체가 결정되지 않아 애초 기재부가 편성해놓은 전당 조직운영비 100억원마저 활용할 수 없게 되는 등 각종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광주시에서는 2월 임시국회를 법안 통과와 마지막 노선으로 정하고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나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나서서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지 않고서는 법안 통과에 요원한 상황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경선룰 文 마음대로 전대 보이콧 불사” 박지원 ‘거취 고민’ 배수진

새정치 전대 파행 위기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가 여론조사 경선 룰을 둘러싼 문제인, 박지원 대표 후보 간의 갈등으로 파행 위기를 맞고 있다.

〈관련기사 4면〉  
전대준비위(위원장 김성곤)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도부 경선 결과에 25% 반영되는 일반 당원·국민 여론조사에서 ‘지지 후보 없음’ 선택을 유효 투표로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전준위는 여론조사 득표를 계산에서 ‘지지후보 없음’을 배제하는 방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1명,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전준위 당헌당규분과위는 지난해 12월29일 전대 룰과 관련, 여론조사에서 기호 1, 2, 3번 후보자 외에 ‘4번 지지후보 없음’을 넣고 이를 선택한 응답자도 득표율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었다.

이에 문 후보 측은 이전 당내 선거에 ‘지지후보 없음’을 득표를 계산에 넣은 적이 없다며 당에 유권해석을 요구해왔다.

결과적으로 전당대회를 불과 몇세 앞두고 조정된 여론조사 경선 룰은 사실상 문 후보 측의 요구가 관철된 결과로서

박 후보 측의 거센 반발을 낳고 있다.

박 후보는 전준위 결정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계파, 폭정의 결과”라며 “이런 반칙에 대해 저는 주위 분들과 거취에 대해 상의하겠다”고 밝히며, 전대 보이콧도 불사할 뜻을 피력했다.

박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이 반칙 없는 세상을 만들자고 했다. 꼭 이렇게까지 반칙을 하면서 당 대표가, 대통령 후보가 되려 하는가 참으로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고 비난했다.

박 후보는 이어 “내일 (전대 권리당원) 투표가 시작된다. 100m 경주에서 98m 왔는데 규정을 바꾼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국민과 당원들은 오늘이 이 반칙을, 친노의 이 횡포를, 반드시 심판하리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일반당원·국민 여론조사(5~6월)에 아직 시일이 있는 만큼 양 측의 극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전준위의 결정을 다시 뒤집기가 어려운데다 당권 판세가 혼전 양상이어서 한 후보가 양보하지 않는 한 전대가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옛 도청 별관 조형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이 최근 설치한 옛 전남도청 별관의 조형물(사진 중앙)이 불을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추진단은 광주항정 단체들이 5월 유적이라며 전면철거를 반대하자 건물 일부(24m)를 철거하고 강구조물로 원래 건물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복원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광주 U대회 D-150... 정부, 여전히 무관심

인천·평창 대대적 지원과 대조  
박대통령 두차례 광주 방문  
한 마디도 언급조차 안 해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이하 광주 U대회·7월3~14일) 개막이 15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부의 무관심이 여전히 성공 개최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최근 광주를 두 차례나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광주 U대회와 관련해선 단 한마

디도 언급하지 않았으며, 예산도 같은 종합 국제 대회임에도 인천아시안게임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박 대통령은 2018년 열릴 강원도 평창올림픽을 직접 챙기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인천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직접 방문해 범정부 지원을 약속하는 등 대조된 모습을 보여 ‘국제대회 지원도 지역차별이냐’는 푸념 섞인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5면〉  
광주시와 광주 U대회 조직위는 자체 협

력체계를 구성하는 등 성공개최를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없는 한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2월 광주시 등에 따르면 이날 광주시청에서 시와 자치구, 광주 U대회 조직위 간부 30명이 모여 성공 개최를 위한 난상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시민서포터즈 5만명’ 구성을 비롯한 최상의 숙식 서비스 제공 등 9개 분야 24개 방안이 논의됐다.

일부 참석자는 토론회 후 정부의 무관심

한 행태 등을 성토했기도 했다.

한 참석자는 “U대회는 호남권에서는 처음으로 열리는 대형 국제행사인데도 정부의 무관심이 도를 넘어섰다”면서 “그동안 각종 국제대회의 지원을 약속했던 정부가 유독 광주 U대회만 외면하면서 대회 조직위의 동력도 많이 떨어진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실제 청와대는 지난해 2월 4년 뒤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 준비를 위한 TF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했으며, 지난해 인천 아시안게임 때는 대회 개최를 2개월 정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인천을 방문해 ‘범정부 지원대책’을 당부하는 등 힘을 실어줬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천 방사성 물질 비상 ▶6면

봉주르 판소리

佛 폐조디·한유미씨 부부 ▶16면

학교설립 61주년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학부 605-1114, 대학원 605-1115

주름줄기에 맞서는 강력한 힘이  
깊어지는 주름을 탄력으로 차올린다

피부 탄성이 무너지면 잔주름이 깊고 넓게 뻗어 나가는 주름줄기 현상이 시작됩니다. 깊어지는 주름줄기를 집중적으로 케어하는 설화수 자여진에센스 - 인삼 성분을 캡슐화한 진세나스피어™가 피부 본연의 탄성을 강화시켜 힘있게 치우르는 매끄럽고 탄력 있는 피부로 가꿔줍니다. 더욱 강력한 인티에이징 효과로, 주름을 이기는 피부의 힘을 경험하세요.

근본에서 찾은 더 좋은 대답, 설화수 자여진에센스

Sulwhasoo

·유명백화점이나 약국에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www.sulwhasoo.co.kr · 페이스북: www.facebook.com/sulwhasoo.kr · 고객센터: 080-020-5454 (수신시간 외곽휴선)